

매서운 수입차 공세 현대·기아차 내수점유율 7년만에 70% 붕괴

상반기 69.5%로 떨어져
수입차 점유율은
7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

수입차 공세가 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현대·기아자동차의 상반기 내수 점유율이 7년 만에 7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신규등록 기준으로 올해 1~6월 현대차와 기아차의 점유율은 각각 42.7%와 26.8%로 양사의 합산 점유율이 69.5%에 그쳤다.

현대·기아차의 신규등록 기준 반기 점유율이 7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7년 상반기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현대차는 점유율 48.2%, 기아차는 20.8%로 합계 점유율이 69.0%였다. 현대·기아차는 이후 기아차의 점유율 상승 속에 2008년 상반기에 71.7%(현대차 47.9%·기아차 23.8%)로 70%대로 올라섰고, 2009년 상반기에는 78.0%(현대차 48.5%·기아차 29.5%)까지 치솟아 최고점을 찍었다. 2010년 상반기에는 72.0%(현대차 41.0%·기아차 31.0%)로 다시 주춤하다 2011년 상반기 73.8%(현대차 43.1%·기아차 30.7%), 2012년 상반기 75.0%(현대차 43.4%·기아차 31.6%)로 재차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71.1%(현대차 41.6%·기아차 29.5%)로 하락하던니 올 상반기에는 점유율이 70% 밑으로 떨어졌다.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추락한 것은 이 기간 수입차가 무섭게 시장을 잠식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07년 상반기 4.5%에 불과하던 수입차의 점유율은 올 상반기에는 12.4%로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수입차 점유율은 5.7%(2008년 상반기), 5.1%(2009년 상반기), 6.2%(2010년 상반기), 7.1%(2011년 상반기), 8.0%(2012년 상반기), 10.5%(2013년 상반기)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만 잠깐 하락세를 뒀을 뿐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다 작년부터는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수입차의 현재 기세가 워낙 거센 까닭에 현대·기아차가 다시 내수 점유율 70% 고지를 탈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합계 점유율은 2007년과 올해 상반기 모두 70%에 약간 못 미쳐 수치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뜯어보면 천지 차이”라며 “2007년에는 현대차가 GM대우,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경쟁하는 구도였기 때문에 점유율 상승 여력이 컸지만 현재는 주된 경쟁 상대가 기술력 면에서 한 수 위로 평가되는 수입차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7년에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이어 GM대우(11.1%), 르노삼성자동차(9.3%), 쌍용자동차(4.9%) 등 국내 완성차 제작업체 3사 모두 신규등록 기준 점유율 면에서 수입차(4.5%)를 앞서는 내수 시장 점유율 25.3%를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는 현대·기아차에 이은 점유율 순위가 수입차(12.4%), 한국GM(9.3%), 쌍용차(4.1%), 르노삼성차(3.7%) 순으로 나타났다. 3사의 몫이 17.1%로 쪼그라든 대신 수입차의 비중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엔 고가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강하던 수입차들이 연비와 성능이 좋은 디젤 차량, 쏘나타급의 중 소형 차량 등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중 소형 차급에서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며 “수입차와 경쟁해 현대·기아차가 내수 점유율 70%대를 회복하는 것은 버거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너무 갑작스레 수입차 업체가 내수 시장을 빠르게 잠식, 국내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국내 시장에서 누려온 과점적 지위에 취해 수입차와의 경쟁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들 역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지 못한 탓에 과거처럼 현대·기아차에 맞서 국내 시장을 분점할 가능성을 잃었다”며 “자동차산업에 위해서는 국내 완성차 업체끼리 비슷비슷한 모델을 가지고 한정된 시장을 빼앗는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수입차 업체와 직접 맞서 경쟁할 수 있는 차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현대차가 BMW 5시리즈,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 등 독일 고급차 모델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 차종으로 프리미엄 차량 ‘아슬란’을 올 하반기 내놓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방향을 올바르게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르노삼성차 'SM7'



기아차 'K9'



한국GM '알페온'

올가을 대형차 시장 달아 오른다

SM7·아슬란·K9·알페온
국내 완성차업체들 앞다퉈 출시
수입차와 뜨거운 한판 대결

아슬란은 현대차로서는 일종의 모험이다. 그랜저를 타던 고객이 다음 차로 제네시스나 에쿠스가 아닌 수입차로 갈아타는 경향이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그중간의 틈새를 메우려고 만든 모델이다. 현대차의 예상대로 수입차 수요가 옮겨온다면 아슬란은 ‘신의 한 수’가 되겠지만, 그랜저나 제네시스 수요가 이동한다면 자체 시장을 나눠 가지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이런 간섭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 차급의 특성을 최대한 잘 각인시킬 수 있는 마케팅 묘안을 찾느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는 오는 11월 2일 반 만에 K9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는다. K9은 기아차의 플래그십(최고급) 세단이자

만, 그동안 판매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K9의 올해 1~7월 내수 판매량은 3000대로, 동급모델인 현대차 제네시스의 2만3427대와 비교하면 판매 부진을 실감할 수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K9이 차는 좋은데, 제네시스나 수입차에 비하면 2%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K9의 전면부 디자인을 변경하고 편의사양 등을 추가해 고급차 이미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한국GM은 준대형 고급 세단인 알페온 2015년형 모델을 내놓고 지난달 26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신형 알페온은 정속주행장치(크루즈 컨트롤)와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을 모든 모델에 기본으로 적용하고, 후진 주차를 돕는 다이내믹 가이드라인 기능을 새롭게 채택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완성차업체가 이처럼 대형차 시장 선전에 나선 것은 비싼 차를 팔아야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원고-엔저와 같이 불리한 환율 상황에서는 준대형차 판매 확대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기아차 5년 4개월만의 야심작 ‘올 뉴 쏘렌토’ 출시



지난 28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기아자동차의 ‘올 뉴 쏘렌토’ 신차발표회에서 김창식 기아차 국내 영업본부장(왼쪽)과 이상용 기아차 시장이 새 쏘렌토를 소개하고 있다. ‘올 뉴 쏘렌토’는 5년4개월 만에 출시된 3세대 모델로 기아의 최신 기술력이 집약됐다. <기아차 제공>

기아자동차가 28일 5년 4개월만에 3세대 쏘렌토를 출시하고 이날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2002년 첫선을 보인 1세대 쏘렌토, 2009년 나온 2세대 쏘렌토를 거쳐 새롭게 태어난 ‘올 뉴 쏘렌토’는 가격이 옛 모델에 비해 최대 25만원 올랐지만 디자인, 주행성능, 안전성 등을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기아차는 출시 이후 12년 동안 전 세계 시장에서 209만여대가 팔리며 브랜드 파워를 쌓은 쏘렌토를 새로 내놓으면서 최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요가 늘고 있는 국내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도 공격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아차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중형 SUV 개발’을 목표로 42개월 동안 총 4500억원을 투입해 만든 신형 쏘렌토는 기아차의 디자인 철학인 ‘직선의 단순함’을 바탕으로 강인한 느낌의 외관과 고급스러운 실내공간을 구현했다. 전체적으로 세련되면서도 역동적인 고급 중형 SUV 이미지를 완성하려 했다는 게 기아차 측 설명이다. 차체는 길이 4780mm, 폭 1890mm, 높이 1685mm,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인 휠베이스는 2780mm로 동급 최대의 크기를 갖췄다.

판매가는 2문 구동, 5인승을 기준으로 2.0 디젤 모델이 2765만~3320만원, 2.2 디젤은 2925만원~3406만원이다. 기아차는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주요 시장에 신형 쏘렌토를 잇달아 선보이며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동룡기자 exian@

대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정원

H.010-8572-8985 T.262-8985

- **진주빌라 89m²**
북구 오치동 1층, 구조중음
매매가 5950만원
- **임야 36026m²**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차선 포장도로 접
전면 86m 접
매매가 2억1800만원
- **다가구 주택 부지**
북구 오치동(도로 접)
대지 928m²(280평)
매매가 4억8000만원

★급매물 접수합니다

오피스텔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20층, 최상층, 전망중음
★ 사무실 적합, 전체 율수리
시세/분양가-4억
매매-2억7천5백만원
- 53평-13층, 코너, 전망중음
전체 율수리, 주거/사무실 겸용
★ 시세/분양가-2억
매매-1억5천5백만원
- 29평-11층, 2세대, 사무실 적합
하천방향, 즉시 입주 가능
매매-6500만원
-일사불 파격 매매

회사 사정상 매매

문의, 010-6836-8500

아파트형 콘도/별장/펜션 분양

문의, 010-6832-8900

-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 ★ **아파트 개념**
전기, 수도, 가스 개별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TV등 빌트인 시설 포함
- ★ **산속의 궁전**
화계정터, 쌍계사, 섬진강 근접거리
- ★ 2층, 28평, 56평 각각 1세대
- ★ **총 55세대 중 잔여세대**
- ★ 28평 - 9000만원(융자 2300만원 포함)
56평 - 1억8천만원(융자 4600만원 포함)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대명리조트와 교환 가능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하실 분
-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